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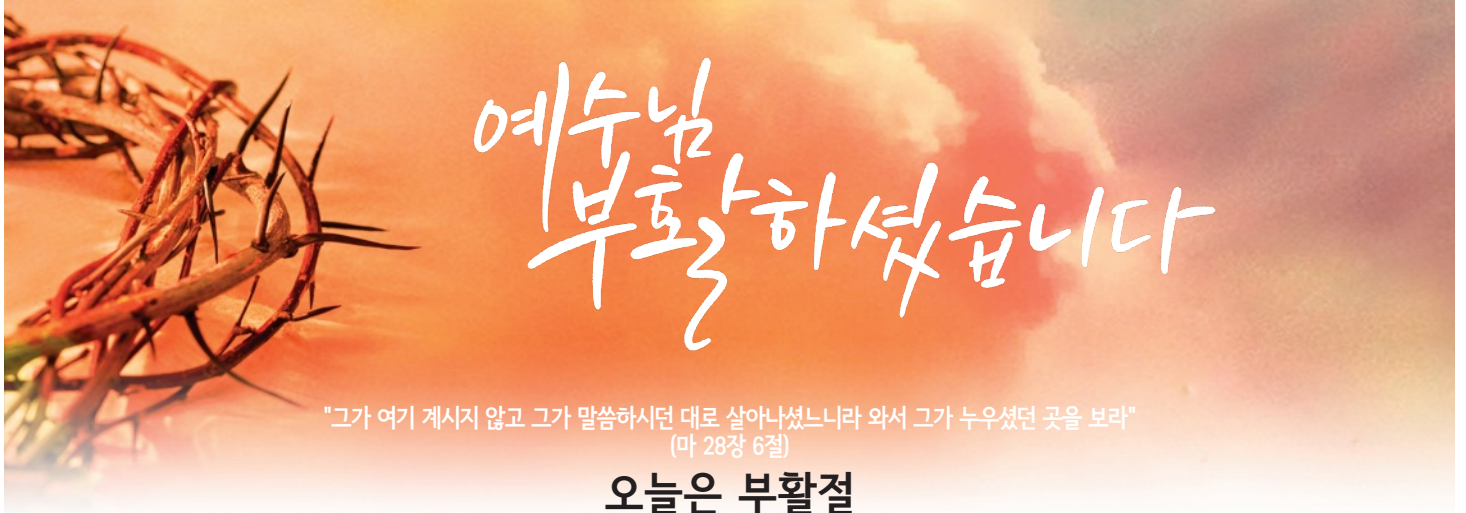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 28장 6절)

오늘은 부활절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거행 / 부활절 감사헌금·성(聖)금요일 금식헌금 드려
찬양예배 시 임마누엘찬양대 부활절 절기찬양

하나님은 죄인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일 I·II·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과 성(聖)금요일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찬양대(대장:이민호 장로)의 부활절 절기찬양이 있습니다. 지휘 유태왕 안수집사, 피아노 이주희 선생, 솔리스트 소프라노 서주희 선생, 장하영 선생, 테너 오세원 선생, 베이스 정주원 선생이 수고하며 이번 특별찬양은 우리나라 작곡가

이근호의 부활절 칸타타 '사랑이 없으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봄학기 모집

교육위원회(위원장:김혜언 장로)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찬양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고자 열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수강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3년도 봄학기 : 4. 15(토)-6. 18(주일), 10주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3개월:45,000)
-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010-9189-8019)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용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 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호	장윤식 안수집사
통기타	주일	13:50	10주	505호	박민서 안수집사
	토요일	10:00	10주	505호	김상운 선생
베이스 기타	토요일	11:30	10주	505호	
드럼	토요일	13:00	10주	101호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요일	14:00	10주	505호	최명아 선생
기초연기	토요일	협의 후 결정	10주	701호	박재현 배우

부활의 새 아침!



손달익 위임목사

부활절을 기다리는 교회의 풍속은 여러 가지입니다. 옛 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정교회와 성공회 교회들 가운데는 성금요일 밤부터 교회 전체의 등을 소등하고 모든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부활절 새벽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온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새벽에 교회들마다 환희에 가득 찬 종소리를 울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캄캄함 중에 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절망에 놓인 온 인류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은 인간 세계와 온 우주에 치명적 고통과 회복 불가능의 절망과 허무를 심었습니다. 개인도 온 세상도 소망 없는 존재였고 허망하고 혼돈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는 영원한 산 소망의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활신앙은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불가역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알리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을 복음의 핵심으로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세력들은 부활 소식을 잠재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권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여러 종교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학자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활 소식을 잠재우려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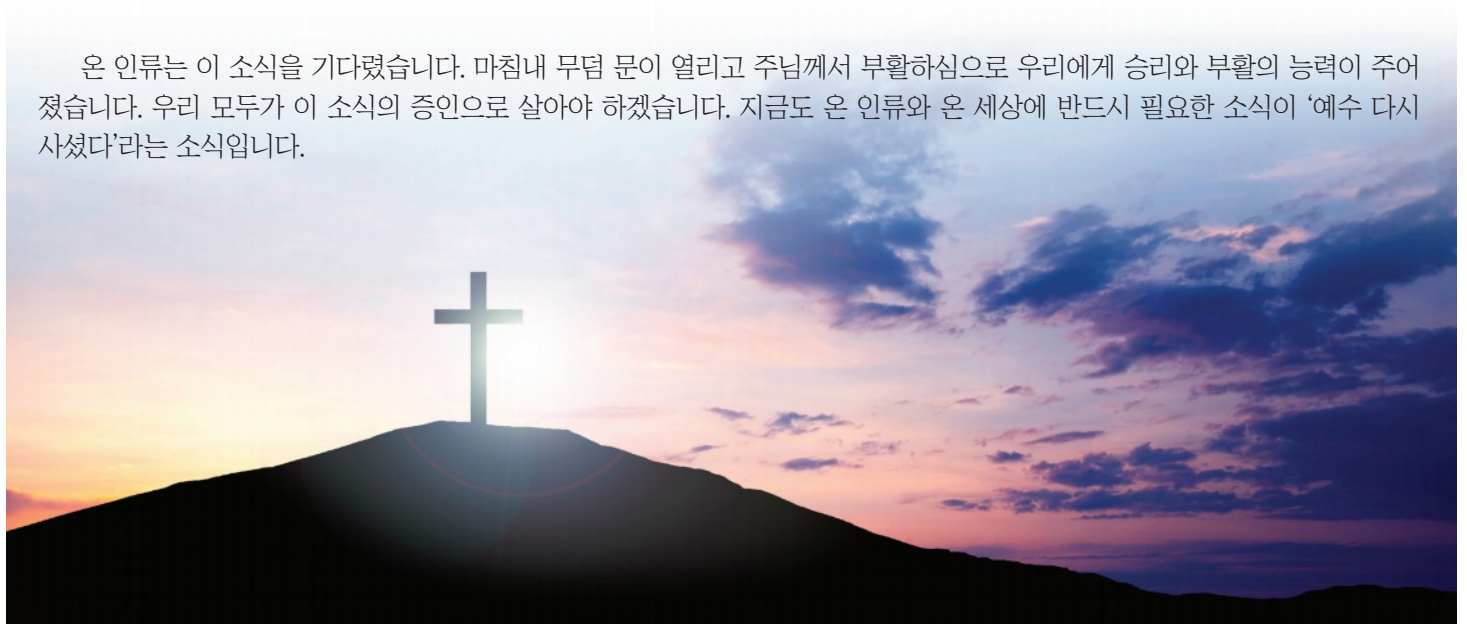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일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과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의 빈 무덤과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가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일 등이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실제로 죽으셨으며 실제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임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부활신앙은 부활의 생명력을 얻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면서 죽음의 세력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죽음이 가져온 모든 공포와 절망까지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빛 앞의 어두움처럼 사라집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음을 거쳐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의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하고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실천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절망과 슬픔 중의 막달라 마리아도 박해자 사울도 흠어졌던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삶은 송고해졌고 삶의 능력은 땅 끝까지 미쳤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는 신앙입니다.

온 인류는 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식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온 인류와 온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식이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민호 장로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환영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드리는 3부 예배 시간 찬양을 담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 서울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을 모아 드려지는 부활절 칸타타, "If Without Love(사랑이 없으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 받은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서울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이웃을 초대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줌 흙으로 돌아가신 목사님



조상희 집사
(6교구)

천국 어딘가에서 종일 찬양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목사님!

이제는 볼 수 없다는 헛헛함이 아직 교회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대학부 시절 목사님 설교를 받아 적은 설교 노트가 몇 권인데도 글자만 받아 적었는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았던 모습을 매주 회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서는 어쩔 그렇게 온 생을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시다가 가셨는지 그저 부럽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천안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좋아하셨던 찬양이 내내 생각나서 목사님 묻혀 계신 무덤 앞에서 불러봤습니다.

저희의 인생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의 길목 곳곳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며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곳에 안 계시지만 언제나 Coram Deo 삶을 살아내도록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평생을 살겠습니다.



열린프로그램

'글로벌기타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장윤식 안수집사
(8교구
강사 기타리스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금년에 서울교회 문화교실에서 클래식기타 합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이지만 찬양은 영과 마음으로 찬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이며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힘쓰라”는 어머니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며 기타찬양단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장윤식입니다. 서울교회 클래식기타합주단은 이미 오래 전에 고 이종윤 목사님께서 “글로벌기타찬양단”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 주셨고 몇몇 성도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한 연주팀으로써 그동안의 공백 기간을 딛고 일어서서 올해에는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

께 클래식기타 찬양을 올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합주단에 참여하여 교우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연주활동을 함께 하실 관심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왕 초보자도 적극 환영합니다. 매 주일 12시 30분부터 505호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 호산나대학 취업자 회원의 날 열려

지난 3월 31일(금) 2023년 취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첫 취업자 모임이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취업자 모임에는 호산나대학 취업자 회원 63명과 교수님들이 참석했고 선·후배 상견례를 시작으로 취업자 회원 활동영상 시청, 임원진 선발, 2023년 취업자 회원 일정 공유, 행운권 추첨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졸업생 중, 직장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선배들이 소개될 때는 후배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존경



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기 근속자 박건영 군(1회 졸업생, 강동성모요양병원 14년 근무)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재미있고 직장

동료들도 잘 도와 주신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장기근속으로 후배들에게 박수를 받으니 가슴 뿌듯하다. 후배들도 취업자 회원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직장생활을 잘 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호산나대학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자 회원의 날, 선·후배 만남의 날, 취업자캠프, 문화활동, 보수교육 등 취업자회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10)

기독교, 전염병에 맞서다



올리버 R. 에비슨



올리버 R. 에비슨 선교사의 수술 장면



메리M커틀러 (Mary M. Cutler)



메리 커틀러 의사와 최초의 간호원 5명

조선에 기독교가 전해진 19세기 말에는 한 반도 전역에 콜레라, 천연두, 말라리아 등의 급성전염병 4-5 종류가 번갈아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 이는 서구 열강의 조선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전염병 중 가장 맹위를 떨쳤던 콜레라는 1821년부터 1910년까지 10차례 이상 대확산을 반복했는데 조선인들에게 면역력이 없었던 초기에는 전파력도 막강했고 치사율도 7-80%에 이르렀다. 이때 의료선교사들은 전염병 방역과 치료를 이끌면서 서구의 의학지식을 조선사회에 보급했다.

당시 조선인 사이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악귀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조선인들은 질병에 걸리면 무당이나 맹인을 찾아갔고, 콜레라 예방을 위해 고양이 그림이나 시체를 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콜레라 귀신이 쥐 귀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본 의료선교사들은 조선인의 무지를 한탄하면서 조선의 위생관념을 개선하는 것에 국가의 존폐까지도 걸려있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의료선교사들의 임무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조선인의 질병관념을 바꾸고 과학적 지식을 전수하는 일로 확장되었다. 선교사들은 순환글로 ‘천연두와 예방주사’, ‘모기와 말라리아’, ‘이와 장티푸스’, ‘벼룩과 재귀열’, ‘파리와 장티푸스’,

‘이질’, ‘십이지장충 및 다른 기생충과 인분을 사용하는 논밭’ 등의 책을 1910년까지 연이어 출판하면서 조선사회를 일깨워 나갔다. 그리고 그 사이 2-3차례 발생한 콜레라의 유행은 조선인들이 선교사를 비롯한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독교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885년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하자 알렌은 조선 정부에 “집 안팎을 청소하고, 하수구에 석회를 뿌리며, 방안에는 유황을 태우는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물은 반드시 끓인 것을 마실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조치를 요청하였다. 콜레라의 감염경로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과학적 방역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조선인은 여전히 미신에 기대며 이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알렌의 권고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나타나자 위생의 중요성이 조선사회에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10년 뒤인 1895년 다시 콜레라의 대 확산이 시작되었다. 조선 정부는 아예 에비슨과 커틀러(Mary M. Cutler) 선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위임했다. 에비슨과 커틀러는 전국에 ‘콜레라를 일으키는 것은 악귀가 아니라 세균’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과 피병원(환자격리병원)을 운영하여 환자를 돌보는 동시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았다. 그 결과 전염병과 건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조금씩

조선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권고를 따르며 집과 주변 공간을 청결하게 하고 음식을 통한 전염을 주의하였다.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서대문 밖의 피병원을 담당했던 언더우드는 자신이 설립한 새문안교회의 교인 중 남성 10명을 선발해 “적십자 콜레라대”를 운영했다. 태극문양 위에 십자가를 새긴 배지를 단 콜레라대의 주요 임무는 시체 운반, 환자 간호, 시내 소독이었다. 콜레라대의 헌신적인 활동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예수쟁이들은 무엇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가”라며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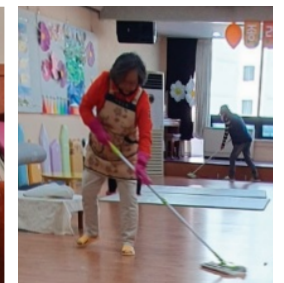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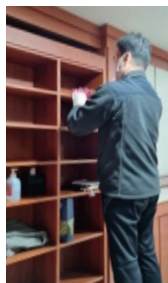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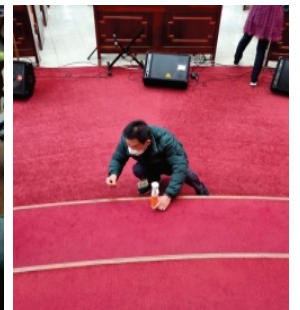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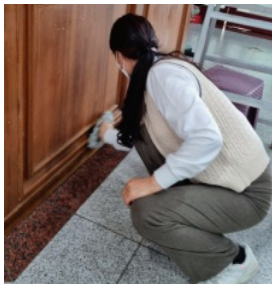
물론 여전히 한계가 분명했다.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은 또 아니었다. 또한 선교사의 방역 조치가 일사분란하게 시행된 것도 아니었다. 일례로 서울의 사대문의 경비 포졸에게 과일과 채소의 유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포졸들이 안일하게 통과시키면서 콜레라가 더욱 확산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에서만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300명 정도가 수용되었던 피병원에서는 절반 이상의 환자가 사망했다. 아쉽고 슬픈 일이지만 원래 첫걸음부터 대단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모든 변화는 크기와 상관없이 위대한 법이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주 1부 예배 시간에 '새아기 축복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6교구 정성우 집사 박경민 집사의 아들 정태우 아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 지난 주일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함을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이 축복의 마음을 모아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왼쪽)

지난 4월 1일(토) "2023년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가 관리위원회(위원장:이강인 장로)의 지도와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회 9층부터 지하 3층까지, 교회외부 물청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구역별로 진행된 보물찾기 등을 통해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준비하신 손길과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하단)



HTSN 해외석학 초청
슈바르케 교수와 한국 신학자들과의 대화

과학기술과 초월

Theology, Technology, Culture



크리스티안 슈바르케 교수
Prof. Dr. Christian Schwarke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개신교신학과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Institut für evangelische Theologie

일시 2023. 4. 14(금)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서울교회 802호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7)
주최/주관 인간기술공생네트워크 HTSN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서울교회
문의 htsnofficial@gmail.com

HTSN 해외 석학 초청 슈바르케 교수와 한국신학자들과의 대화

4월 14일(금) 오전 10시
서울교회 802호

인간기술공생 네트워크 HTSN 주최 '과학기술과 초월'을 주제로 드레스덴공과대학교 개신교신학과 교수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케 교수와 한국 신학자들의 대담이 4월 14일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802호에서 열립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디자인팀(팀장:김금재 안수집사) 디스플레이파트에서 작년 장식한 무덤 등을 대대적으로 손보며 부활절 장식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순례자 편집 디자인 변경

이번 주일부터 순례자 편집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히 결혼과 출산 동정에 결혼 당사자인 신랑·신부, 새로 출생한 아기와 부모 사진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정

1면 캘리그라피: 7교구 임종현 안수집사

식사

- 3교구 고 장승안 성도 유가족(박해자1 성도, 딸 장인애·사위 송효상)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10일	월	삼하 4-9		시 120-138	
4월11일	화	삼하 10-12		시 139-150	
4월12일	수	삼하 13-15		잠 1-6	
4월13일	목	삼하 16-18		잠 7-12	
4월14일	금	삼하 19-21		잠 13-18	
4월15일	토	삼하 22-24		잠 19-24	
4월16일	주일	왕상 1-2		잠 25-31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이웃과 세상에 널리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코로나 시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부활 신앙의 생명력으로 다시 부흥하는 서울교회, 한국교회, 세계 교회 되게 하소서.
3.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 아래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사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